
마을돌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돌봄모델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2021. 07

제출문

이 보고서를 <2021년 협동조합(사회적경제)
모델발굴 연구사업>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07

춘천여성협동조합

【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온종일돌봄정책에 대한 한계점	1
2) 민관거버넌스 돌봄사업의 가능성	7
2.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14

II. 춘천시 돌봄정책 현황

1. 온종일돌봄정책에 따른 춘천시 돌봄현황	17
2.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현황	25

III. 시민이 바라는 초등돌봄의 방향

1. 초등돌봄 수요자/종사자 분석	28
2.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분석	35
3. 더불어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	38

IV. 호반안심마을공동체 사례연구

1. 공동체 구성배경 및 추진과정	39
2. 어린이작업장 뚜루뚜와 안심마을만들기	44
3. 호반안심마을을 통한 민관학 거버넌스	55

V. 결론

지속가능한 춘천형 돌봄모델 제안	61
-------------------	----

참고자료	64
------	----

표목차, 그림목차, 사진목차	65
-----------------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마을돌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의 사회적경제모델을 연구하며, 마을돌봄 중에서도 초등돌봄에 집중해 정책을 분석하고 추천형 돌봄모델을 제안한다.

'마을돌봄'은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마을공동체 돌봄사업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마을돌봄'은 정부의 온종일돌봄정책에서 사용되는 정책적 용어로 학교돌봄 이외에 민간영역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마을돌봄'은 민간영역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어린이집,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에 해당하며 연구에서는 그 밖에 정부보조금사업을 받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영역의 돌봄 또한 '마을돌봄'으로 포함한다.

1) '온종일돌봄' 정책에 대한 한계점

2018년 정부는 돌봄의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하고 7세-12세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돌봄사업 확대를 발표했다.¹⁾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어린이집,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초등돌봄 이용아동을 약 33만명으로 추산하고 돌봄사각지대의 아동 20만명을 확대해 공적돌봄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18.04.04.,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현재	확대	합계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	24만	+ 7만 (초등돌봄교실) 3만 (교실활용)	⇒ 34만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어린이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9만	+ 10만	⇒ 19만
	33만	20만	53만명

[표1] 온종일돌봄 공급계획(총괄)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2020년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대해 초등학생 30만 4천명에게 돌봄을 제공²⁾한다고 밝혔으나, 700개 증실 방안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학부모가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였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기존 (19,430)	2,060	645	590	799	299	491	290	187	3,215	588	482	750	777	689	859	974	215	13,910
증실	80	11	6	170	5	5	13	6	266	20	29	9	9	13	37	15	6	700
계	2,140	656	596	969	304	496	303	193	3,481	608	511	759	786	702	896	989	221	14,610

[표2] 2020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출처: 교육부, 2020,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또한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공보육 이용률 50%를 목표로 초등돌봄교실 확충 이외에 다함께돌봄센터도 450개소 확충³⁾계획을 밝혔다. 2021년 6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497개⁴⁾로 목표치를

2) 교육부 보도자료, 2010.01.09.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1.03.30., 「제35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회하지만, 서울 162개, 경기 103개로 수도권에 53%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처럼 2018년 온종일돌봄정책 발표 이후 해마다 추진되는 초등돌봄공백 해소 방안은 대부분 서울·경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은 더딘 속도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구분		중앙부처	대상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맞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대상 초등1.2학년 중심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취약계층대상 초등 전학년
마을돌봄	방과후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장애아동 등 중심
	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초등학생 전학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대상(4-6학년)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	맞벌이 가정 우선(만18세미만 자녀와 보호자)

[표3] 초등돌봄 부처별 진행현황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정부의 돌봄사업의 한계점은 수도권 집중뿐만 아니라, 부처별 연계없이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도 있다. [표3]과 같이 초등돌봄사업은 부처별로 따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돌봄대상 또한 모두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어 돌봄사각지대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방과후를 필요로 하는 23.1%의 가정들이 맞벌이·저소득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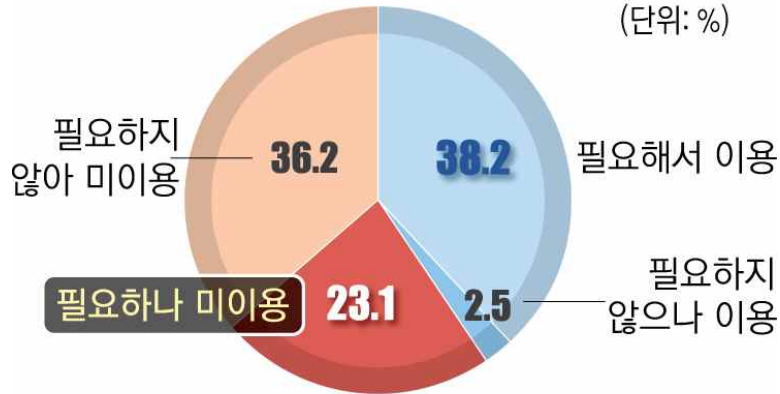
공적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학습지, 베이비시터 등 민간 서비스 이용에 월 최소 5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이 23.1%가 돌봄사각지대로 기존의 공적돌봄체계가 '소득'중심에서 '필요'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⁵⁾

4)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 홈페이지(<https://dadol.or.kr/board/center>)

5) 서울신문.2021.06.18. “초등생 23% 방과후 ‘돌봄사각지대’ ”돌봄 기준 소득 -> 필요 중심 전환해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2020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050명 조사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실태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그동안 중앙부처별 돌봄정책의 분절화, 돌봄사각지대 양산이 지적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6월 온종일돌봄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학부모와 돌봄전담사,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 그룹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본 법안은 결국 유보되었다.

의안명	제안일자	의안처리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민정의원등 11인)	2020.08.04	계류의안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칠승의원 등 11인)	2020.06.10	계류의안

[표4] 온종일돌봄 특별법 의안 현황

출처: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해당 법안은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협의해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명확히 하였다.(이윤진,2020) 그러나 초등학교 내 돌봄전담사들의 초단시간 근무체계가 개선되지 않

은 상황에서 본 법안이 돌봄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으로만 보여지면서 전국적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⁶⁾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은 첫째, 온종일 돌봄의 주체는 교육부인가, 지자체인가 하는 부분이다. 공적돌봄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실제 지자체 주도로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만이 확산된다면 '무늬만 공적돌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민간기관에 돌봄사업이 위탁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신감이 큰 현실이다.

둘째, 공적돌봄의 '안전한 공간'에 대한 신뢰 문제이다. 지난해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에 의하면 부모들이 희망하는 돌봄유형 1순위는 응답자의 73.34%인 39만 1,220명이 학교제공 '초등돌봄교실'을 가장 희망했다. 2순위는 지역아동센터(7만3488명), 3순위는 다함께돌봄센터(4만418명) 순⁷⁾으로 자녀가 초등저학년의 경우 학교가 전담하는 초등돌봄교실을 가장 선호했다. 이는 돌봄 동선이 가장 짧고, 위급한 상황 시 학교와 연계해 가장 신뢰성 높게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초등돌봄의 경우, 주양육자의 돌봄인프라 인지·경험유무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며 자녀의 학년에 따라 돌봄의 희망형태가 달라진다.

구분	초등돌봄 방과후	공공 인프라 ⁸⁾	시설 교육기관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37.5	7.1	41.8	10.6	2.3	0.7	100	(5,021)
1학년	48.6	5.7	30.3	11.5	3.0	0.9	100	(880)
2학년	45.3	5.9	34.1	11.3	2.5	1.0	100	(886)
3학년	37.3	7.0	41.7	12.2	1.4	0.4	100	(810)
4학년	35.1	8.0	44.8	9.2	2.2	0.7	100	(852)
5학년	31.4	7.4	47.4	9.9	3.0	0.9	100	(822)
6학년	25.4	8.6	54.7	9.5	1.6	0.3	100	(771)

[표5] 초등학생 자녀의 학년별 희망 주간 돌봄 유형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표7-22>

6) 연합뉴스. 2020.09.29. “'온종일 돌봄 특별법' 진통…총파업 예고”

7) 한겨레신문.2020.11.25. “학부모 학교제공 초등돌봄교실 가장 희망한다”

8) 표에서의 공공인프라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이 해당하며 시설교육기관은 사설학원, 공부방, 방문교육 및 과외 등이 해당된다. 기타에는 어린이집 방과후보육,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아이의 형제 자매, 아이 혼자등이 포함된다.(김은정,2018, 「자녀 돌봄실태와정책함의」)

[표5]에 따르면, 초등1-2학년의 경우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실 이용을 45%이상 희망하지만 초등 3학년 이후 돌봄의 희망형태가 공공인프라와 사설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인프라 선호도가 한 자리 숫자인 경우는 선별복지 돌봄정책에 따라 진입장벽에 막혀있거나, 지역 내 다양한 공공인프라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온종일돌봄정책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집중화와 중앙부처별 분절적인 서비스 체계이다.

수도권인구가 전국인구의 50%를 돌파하면서⁹⁾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돌봄복지체계가 고르게 성장해야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서비스가 집중되어있다. 또한 중앙부처별 돌봄 정책이 분절화되면서 통합적으로 사례관리가 되지 못하는 점 또한 한계점이다.

둘째, 온종일돌봄법을 둘러싼 학교와 돌봄종사자, 학부모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는 갈등지점이다. 돌봄의 문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차이를 좁히고 공동의 과제로 인식해야 하지만 일자리문제, 돌봄의 외주화 문제로 비추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셋째, 선별복지에 따른 돌봄사각지대 양산이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립되면서 보편복지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돌봄사각지대를 담기 위한 돌봄시스템은 아직도 부족하다.

넷째, 돌봄을 받는 아동의 관점에 대한 의미 고찰이 부족하다. 초등학생의 성장에 따라 돌봄의 방식은 다양해지고 아동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돌봄을 책임지는 학부모, 종사자의 입장에서만 정책이 펼쳐지는 한계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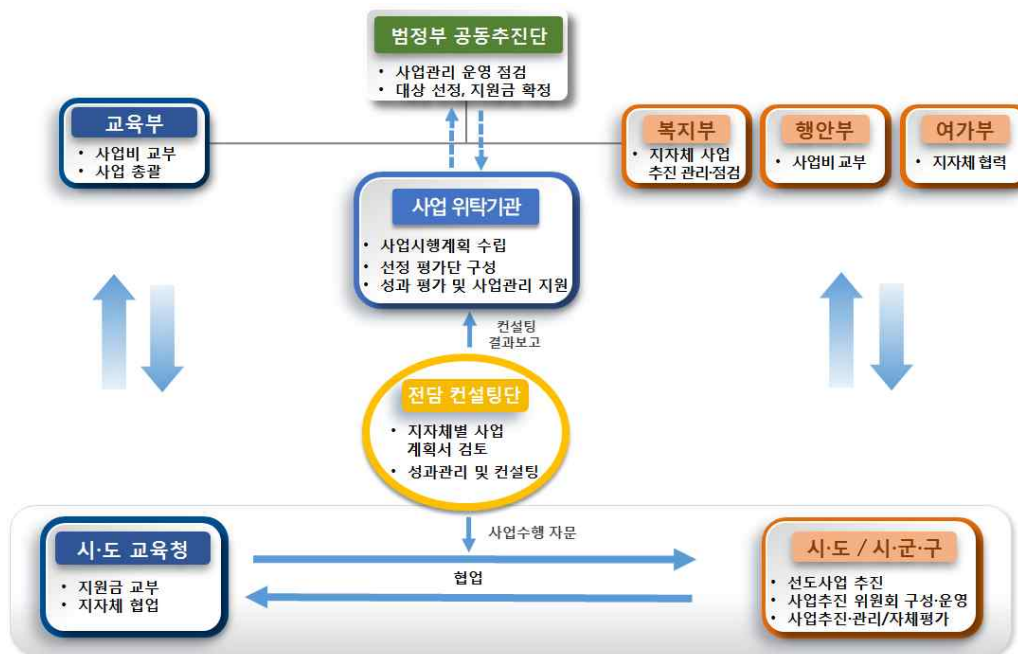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한계를 딛고 지자체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온마을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선진사례들 또한 대두되고 있다. 다음장에서는 민관거버넌스 돌봄사업의 가능성을 실제사례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9) 한겨레신문.2020.01.06.「수도권 인구,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0% 돌파」

2) 민관거버넌스 돌봄사업의 가능성

2018년 교육부와 관계부처(복지부, 행안부, 여가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원지역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총 9개 지역)를 선정하고 3년간 총 8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돌봄서비스 모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¹⁰⁾

이 선도사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로 ①도시형A,B형과 ②도농복합형으로 모델안을 제시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자체와 교육청간 업무협약을 필수 조건으로 공시했다. 또한 돌봄서비스 운영을 확대해 기존 취약계층 중심 돌봄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개선하였으며 돌봄공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주민센터와 도서관, 복지관과 같은 공공시설 인프라도 포함했다. 인력 또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돌봄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자 했다.¹¹⁾



[그림2]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업추진체계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8. 05.04,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10) 교육부 보도자료, 2018.06.28,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11) 교육부 보도자료, 2018. 05.04,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시도	시·군·구	주요 사업 내용
서울	구로구	<p>▷다함께 행복한 ‘온(溫)’ 돌봄공동체 만들기 (지역여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고 서민 주거지역이 밀집 (사업내용)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 걸음으로 15분 안에 24시간 돌봄이 보장되는 돌봄 지원체계 구축·운영</p>
	노원구	<p>▷아동 친화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우리동네 아이 휴센터”조성 (지역여건) 중위소득 맞벌이 가정 비율이 높아 소득에 무관한 돌봄확충 필요 (사업내용) 집중돌봄(종일), 시간돌봄(일시), 공간나눔(유희공간 리모델링), 시간나눔(돌봄기관의 빈시간 활용, 저녁) 등 운영</p>
	성동구	<p>▷온마을 행복돌봄 한울타리 네트워크 (지역여건) 초등돌봄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연자원 활용 활발 (사업내용) 돌봄 포털시스템 구축, 주민센터, 종교시설, 아파트, 교실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p>
	성북구	<p>▷아이를 돌보는 마을, 아동친화도시 성북 (지역여건) 초등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이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음 (사업내용) 폐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활용한 돌봄망 확대, 시간별 이원적 돌봄체계 구축: 울타리형(방과후~17시), 등지형(17~21시)</p>
	서구	<p>▷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우리 아이들, “서구 C.C.C” 구축사업 (지역여건) 신도시 개발지역, 공동화로 인한 쇠퇴지역, 농촌지역 등 다양한 구너역 존재, 돌봄의 질적향상 필요 (사업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도서관) 유희공간 활용</p>
경기	시흥시	<p>▷함께 키우는 시흥아이 (지역여건)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여 권역별 맞춤형 돌봄 공급 필요 (사업내용) 평생교육도시 사업등으로 양성한 지역내 인력(마을강사, 학교강사 등 250여명) 활용, 자체 개발한 돌봄 모형을 통한 서비스 확대</p>
	오산시	<p>▷오산형 돌봄 “함께 자람” (지역여건) 평균연령 36.4세의 젊은 도시, 30분 내 이동가능한 콤팩트 도시 (사업내용) 온라인 포털 추가하여 지역사회 풍부한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 돌봄 통합지원</p>

충남	홍성군	<p>▷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도농복합형 돌봄 생태계 구축 (지역여건)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지역과 기존 농촌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 (사업내용) 읍지역은 교실을 활용, 신도심은 아파트 단지내 돌봄센터 설치·운영(LH 무상임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틈새돌봄지원</p>
전남	광양시	<p>▷“해아 돌봄센터” 운영 (지역여건) 도농복합도시, 평균연령 39.5세로 전국 대비 젊음. (사업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돌봄센터 운영</p>

[표6] 2018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현황

출처: 김은정·홍진주·정세미·김현진 2021, 「지역사회 기반 초등돌봄 사업의 현황과 과제」

[표6]와 같이 정부는 온종일돌봄정책 모델화를 위한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3년간(2018년~2020년) 진행했다. 전체적인 사업명은 <온종일돌봄>이지만, 지역에 따라 온종일돌봄센터, 아이휴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함께자람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돌봄공간을 개소·운영하였다.

돌봄공간은 ①도서관·교회·마을기업 등 무상임대 1개 지역, ②단독주택 유상 임대 1개 지역, ③아파트 유휴공간 활용 5개 지역, ④학교 유휴공간 활용 2개 지역이었다.¹²⁾ 사업의 운영주체는 8개 지역 중 5개 지역은 직영으로 운영되었고, 서울 구로구는 사업비 공모, 경기 시흥시는 사단법인 위탁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주무팀은 아동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등으로 지자체마다 상이했다. 자치단체별로 주무부서는 상이하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온종일돌봄조례를 모두 제정했다.

본 선도사업이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한 직영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전체의 60%를 넘는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 크나, 해당 자치단체들은 지역내 초등돌봄을 수행할 민간주체 부족으로 직영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위탁운영 법인격을 갖고 관련 전문성과 행정력을 가진 지역사회 파트너를 찾고 있으나 기존 복지시설 운영법인들은 업무영역 확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신규단체의 경우

12) 전남 광양과 충남 홍성은 아파트 유휴공간과 학교 유휴공간 모두 이용

자격여건 및 운영역량 등에서 진입장벽이 존재했다.(김은정 외, 2021)

시도	시·군·구	센터명	공간임대	운영주체	자치단체 주무팀	생태체계
서울	구로구	온종일 돌봄센터 (24개소)	무상 (도서관,교회,마을기업등)	사업비 공모	어르신 청소년과 온종일 돌봄팀	혁신 교육지구
	노원구	아이휴센터 (15개소)	유상 (아파트)	직영	아동 청소년과 아동친화 정책팀	노원구 네트워크 지원단 (중간 지원조직)
	성동구	아이꿈 누리터 (7개소)	유상/무상	직영	아동청년과 초등돌봄팀	아동친화도시, 혁신교육지구, 소셜벤처단지
	성북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1개소)	유상 (단독주택 전세)	직영	여성가족과 온종일돌봄 TF	아동친화도시, 혁신교육지구, 사회적경제 특구
경기	시흥시	아이누리 돌봄센터 및 돌봄나눔터 (12개소)	무상 (아파트 유희공간)	위탁 (사단법인)	아동보육과 온종일 돌봄팀	민관학 네트워크
	오산시	함께 자람센터 (2개소)	무상 (아파트 유희공간)	직영	아동 청소년과 온종일 돌봄팀	오산교육재단 (교육지원), 아동친화도시, 혁신교육지구
전남	광양	꿈수레 돌봄센터 (2개소)	무상 (학교,아파트 유희공간등)	위탁 (입주자 대표회의 등)	아동친화 도시과 아동친화팀	어린이 보육재단
충남	홍성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	무상 (학교,아파트 유희공간등)	직영	가정행복과 아동드림팀	도교육청

[표7] 지역(사례)별 초등돌봄사업 운영현황 및 특성

출처: 김은정·홍진주·정세미·김현진 2021, 「지역사회 기반 초등돌봄 사업의 현황과 과제」

돌봄정책의 경우 직영/위탁의 한계점을 넘기 위해서는 민관거버넌스 테이블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온종일돌봄 선도사업 지역 중 홍성

이나 광양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지역 내 자원망의 규모나 활성화 정도가 크지 않아 공공주도의 공적자원 투입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 반면, 지역사회 거버넌스 기반조성이 확보되어있는 지역들의 경우(성북, 시흥 등) 다양한 지역자원망을 통한 사업수행과 더불어 돌봄사각지대에 대한 개입까지 실시하고 있었다.(김은정 외, 2021)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과 더불어 거버넌스 정책으로 눈여겨볼 사업은 바로 교육부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혁신교육지구는 '마을이 학교다'라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와 단위학교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조직, 수업혁신에 이를 수 있는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이윤미 외, 2015)

지역	명칭	도입연도	지정현황		
			전체	지정지구	비율(%)
서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013	25	25	100.0
부산	다행복교육지구	2018	16	7	43.8
대구	대구미래교육지구	2020	8	6	75.0
인천	교육혁신지구	2015	10	7	70.0
광주	마을교육공동체	2016	5	5	100.0
세종	행복교육지구	2015	1	1	100.0
대전	혁신이음혁신교육지구	2018	5	5	100.0
울산	서로나눔교육지구	2020	5	2	40.0
경기	혁신교육지구	2011	31	30	96.8
강원	행복교육지구	2016	18	12	66.7
충북	행복교육지구	2017	11	11	100.0
충남	행복교육지구	2017	15	14	93.3
전북	혁신교육특구	2015	14	6	42.9
전남	전남혁신교육지구	2013	22	22	100.0
경북	경북미래교육지구	2020	23	5	21.7
경남	행복교육지구	2017	18	9	50.0
전체			227	167	73.6

※출처: 교육부(2020) p.5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표8] 전국 혁신교육지구 현황

출처: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chedi.re.kr>)

혁신교육지구의 추진과제는 교육공동체, 배움성장, 소통협력, 교육혁신으로 구분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교육공동체 관련 과제가 가장 많았으

며 마을학교 및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11곳), 마을 연계 교육과정(10 곳),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10곳), 지역특화사업(8곳), 마을활동체제 구축(6곳)이었다.¹³⁾

강원도 교육청은 '행복교육지구'라는 명칭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교육거버넌스, 혁신교육문화 정착,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과 배움, 지역특화사업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추진과제	강원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세부과제
지역교육거버넌스	행복교육지구 협의체 행복교육지구 지원단 민·관·학 지역교육거버넌스 구축 읍면동 단위, 학교단위 거버넌스 구축
혁신교육문화정착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 교원학습공동체, 개방형 학습공동체 - 행복교육지구 연구회 등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과 배움	마을선생님, 온마을학교, 마을자산 발굴 및 성장지원, 학교 연계 활동,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지역 특화 사업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지역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추진

[표9] 강원도 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추진과제
출처: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gwe.go.kr>)

강원도교육청은 추진과제 중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타시도에 비해 돌봄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해 '강원도형 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아이들이 정규 수업 이후 학교 안팎에서 양질의 돌봄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¹⁴⁾

온종일돌봄선도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주목할 점은 지역별

13) 박수정의, 2021, 「시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정책분석: 2020학년도 혁신교육지구 계획을 중심으로」

14) 강원종합복지신문, 2020.01.06., 「민병희 교육감, '지성과 감성 갖춘 민주시민' 길러내겠다!」

특성에 따라 민관이 협력하는 돌봄협의체, 행복교육지구 협의체 등을 구성, 지역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연계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체 구성 요건들은 기존의 위계적 거버넌스의 문제를 개선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작용한다. 협력적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참여적 거버넌스의 형태이기도 하나,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가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책임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¹⁵⁾

정부의 돌봄정책이 다양한 갈등지점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돌봄공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민관이 자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살려내야 과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에서는 지역 생활권을 기반으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민간 파트너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 성북지역은 아동친화도시,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사회적경제특구 사업 참여지역으로 돌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 집행경험에 따른 민관거버넌스 기반이 잘 확보되어 있었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별별재미난교실」을 전환하여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오픈하면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다.

서울 성동 지역 또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주민센터, 종교시설 등 다양한 유휴공간과 마더센터 등 주민기반 조직과 연계하여 다양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돌봄과 교육은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사회적경제 영역과 맞닿아 있으며 민관거버넌스 돌봄을 통해 파트너십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해결의 상수로 작용할 것이다.

민관거버넌스의 돌봄사업은 ①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돌봄정책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②교육청과 지자체, 시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③시민사회/사회적경제 영역의 돌봄역량 강화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5) 최정은, 2017 「마포마을방과후와 민관학 거버넌스 사례연구」

2.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정부의 온마을돌봄정책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 춘천시의 돌봄현황을 파악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춘천형 돌봄모델을 위한 제반조건을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춘천형 사회적경제 돌봄모델이 정착하기 위한 조건들을 도출한다. 또한 현재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사례중 하나인 <호반안심마을공동체> 돌봄사례를 통해 민관거버넌스 돌봄모델을 제안한다.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는 돌봄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학부모, 돌봄종사자 그룹을 2021년 6월 8일과 6월14일, 6월 19일, 7월 3일 총 5회차에 걸쳐 16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6월 15일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우리봄내동동'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과 <민관거버넌스 사회적경제 돌봄모델 간담회>를 개최해 해당 조직의 비즈니스 돌봄모델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자녀연령	나이	주거지	취업유무	성별
A그룹 (6월8일)	사례1	9세	39세	후평3동	×	여
	사례2	8세, 9세	43세	후평3동	×	여
	사례3	8세, 9세	43세	후평3동	×	여
	사례4	13세, 8세	44세	후평3동	×	여
	사례5	12세	46세	후평3동	×	여
B그룹 (6월8일)	사례6	14세, 11세	45세	후평1동	○	여
	사례7	8세	38세	후평3동	○	남
	사례8	11세, 10세	42세	거두리	○	여
C그룹 (6월14일)	사례9	10세, 6세	42세	우두동	×	여
	사례10	20세, 10세	49세	만천리	×	여
	사례11	13세, 10세	45세	효자동	×	여

[표10] 돌봄수요자(주양육자) 심층면접 명단

		돌봄종사자 경력	나이	근무지	성별
D그룹 (6월19일)	사례12	1년 1개월	43세	다함께돌봄센터	여
	사례13	5년	46세	초등학교 돌봄교실	여
	사례14	3년	44세	초등학교 돌봄교실	여
E그룹 (7월3일)	사례15	7년	38세	지역아동센터	여
	사례16	15년	51세	지역아동센터	여

[표11] 돌봄종사자 심층면접 명단

주 양육자 그룹인 A·B·C 그룹은 취업유무와 성별, 자녀의 나이와 주거지에 따른 돌봄욕구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D·E그룹은 초등학교와 민간기관에서 돌봄노동을 하는 종사자 중심으로 돌봄개선방향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마을돌봄교육공동체명	소속	참여자	조직형태
사북면 마을교육협의회 '어우름'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호반안심마을공동체	춘천여성협동조합	이**, 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철전동 마을돌봄교육공동체	다행이다	서**, 윤**	협동조합 설립 준비 중
퇴계동동	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	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중
	한봄 사회적협동조합	공**	사회적협동조합

[표12] 마을돌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사회적경제 돌봄모델 간담회 명단

마을돌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사회적경제 돌봄모델 간담회는 6월 15일 커먼즈필드 춘천 1층에서 진행되었으며 5개 공동체 중 4개의 공동체가 참여해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를 통한 해당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육구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연구절차는 [표13]과 같이 조사원 2명과 함께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에 참여하는 춘천여성협동조합의 <호반안심 마을만들기>의 사례를 대표사례로 모델연구를 진행하였다.

4월에서 7월 초까지 후평3동을 중심으로 초등돌봄을 수행한 자료들을 취합해 이를 모델링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돌봄 수요자 및 종사자의 욕구분석과 춘천시 관내 5개 마을돌봄교육공동체의 사례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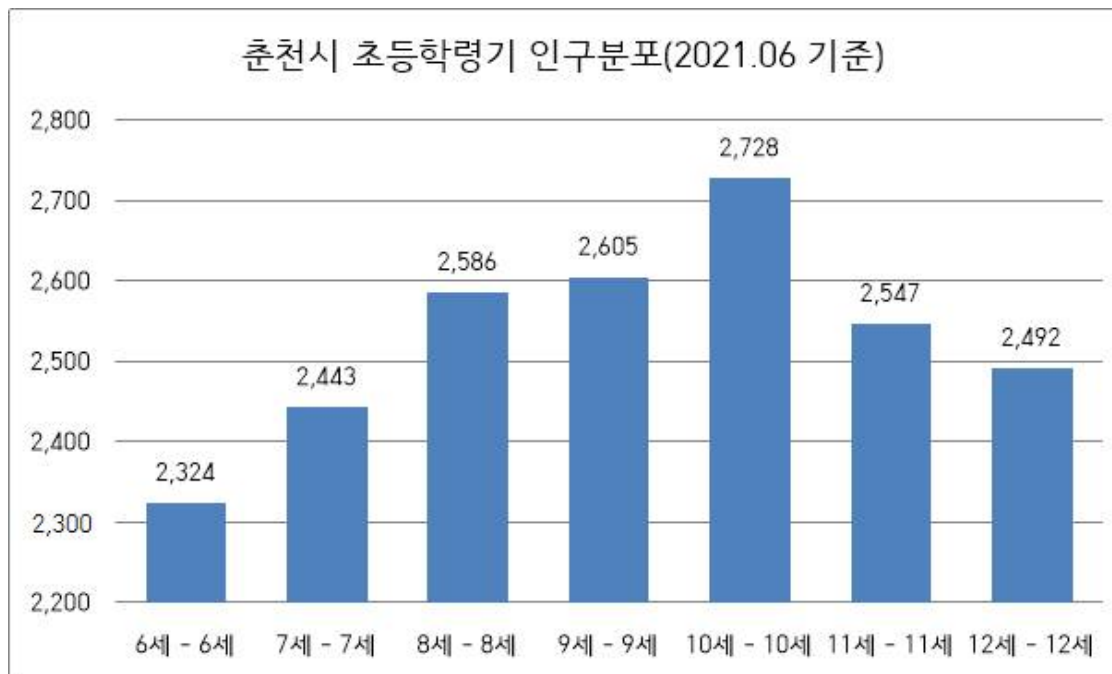
	3월	4월	5월	6월	7월
문헌조사	○	○	○		
돌봄모델연구		○	○	○	○
FGI분석 간담회 개최				○	○
자료정리				○	○

[표13] 마을돌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사회적경제 돌봄모델 연구절차

Ⅱ. 춘천시 돌봄정책 현황

1. 온종일돌봄정책에 따른 춘천시 돌봄현황

2021년 6월 기준, 춘천시의 초등학령기 인구분포도를 보면 학년당 2,300명~2,700명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주양육자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초등 1,2학년 저학년 그룹은 대략적으로 4,700~4,800여명이였다. 춘천시 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초등학생 전체수는 14,149명¹⁶⁾으로 춘천시 전체인구 286,178명의 4.9%에 해당한다.



[그림3] 춘천시 초등학령기 인구분포도(2021년 6월 기준)

출처: 춘천시청 주민등록인구현황(만 나이)¹⁷⁾

2021년 교육부 학교알리미 지역별 공시정보에 따르면, 춘천시 관내 42

16)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현황(2021년 4월 1일 기준)

17) 춘천시청 주민등록인구현황은 만 나이로 지표가 나와 있어, 만 6세와 만 12세의 초등학령기 경계에 있는 아동이 상당수 존재함. 실제 춘천시교육지원청 초등학생 전체수 14,149명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개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수는 평균 1.6개로 초등돌봄학생 참여율은 8.2% 였다. 초등학교당 방과후 학교 평균 강좌수는 17.7개로 학생참여율은 38.1%로 나타났다.

지역	초등돌봄 운영교실 수 평균(개)	초등돌봄 학생 참여율(%)	학교당 방과후학교 평균 강좌 수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춘천시	1.6	8.2	17.7	38.1
강원도	1.1	9.6	15.4	48.8
전국	2.0	9.2	17.4	33.3

[표14] 춘천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초등돌봄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지원 현황
출처: 학교알리미 학교별 공시정보

[표14]에 따르면 춘천시의 초등돌봄 운영교실은 전국평균 2.0개에 못 미치는데 이는 2018년 정부의 온종일돌봄정책 발표 이후, 서울경기지역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진행되었지만 비수도권 광역단위로 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¹⁸⁾

춘천시 관내 초등돌봄시설은 ①초등돌봄교실 ②지역아동센터 ③다함께 돌봄센터 ④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⑤공동육아나눔터 ⑥방과후어린이집 으로 춘천시 소재이지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원도청소년수련원)와 다함께돌봄센터(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일부는 강원도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18) [표2] 2020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참조

[춘천시 초등돌봄교실 현황]

시도	학교명	교실수	이용인원	소재지	연락처
1	가산 초등학교	1	16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52 (동면. 가산초등학교)	
2	광판 초등학교	2	21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김유정로 159-12 (남산면. 광판초등학교)	
3	교동 초등학교	2	18	강원도 춘천시 교동길 29. (교동113-4) (교동. 교동초등학교)	
4	근화 초등학교	2	33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63번길 23 (근화동)	
5	금병 초등학교	2	40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394 (신동면. 금병초등학교)	
1	금산 초등학교	2	44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2길 21 (서면)	
2	남부 초등학교	3	17	강원도 춘천시 춘수로 159 (퇴계동). 남부초등학교	
3	남산 초등학교	1	22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한치로 59 (남산면)	
4	남산초등학교 서천분교장	1	13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백길 152 . 서천분교장	
5	남춘천 초등학교	3	37	강원도 춘천시 충훈길 33 남춘천초등학교 (온의동)	
6	당림 초등학교	1	13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숲안길 81 (서면)	
7	동내 초등학교	2	36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131 . 동내초등학교 (동내면)	
8	동부 초등학교	2	40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339 (후평동) 동부초등학교	
9	동춘천 초등학교	2	39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77 (효자동) 동춘천초등학교	
10	만천 초등학교	5	40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석로326번길 89 (동면. 만천초등학교)	

시도	학교명	교실수	이용인원	소재지	연락처
11	봄내 초등학교	3	60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220-10 (석사동.봄내초등학교)	
12	봉의 초등학교	2	37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41 (약사동)봉의초등학교	
13	부안 초등학교	5	84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239번길 70 . 부안초등학교 (후평동)	
14	상천 초등학교	1	21	강원도 춘천시 신복읍 상천2길 19 . (상천초등학교) (신복읍)	
15	서상 초등학교	2	59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1348 . 서상초등학교 (서면)	
16	석사 초등학교	2	38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08-17 (석사동). 석사초등학교	
17	성림 초등학교	2	32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47 (석사동). 성림초등학교	
18	성원 초등학교	4	80	강원도 춘천시 승지골길16번길 36 (퇴계동).성원초등학교	
19	소양 초등학교	3	50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134. 소양초등학교	
20	송화 초등학교	1	11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춘화로 510-5 . 송화초등학교 (사북면)	
21	신남 초등학교	2	40	강원도 춘천시 칠전서길 37 . 신남초등학교 (칠전동)	
22	신동 초등학교	2	30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3116 (신동. 신동초등학교)	
23	오동 초등학교	2	43	강원도 춘천시 신복읍 장본길 74 (신복읍. 오동초등학교)	
24	우석 초등학교	3	40	강원도 춘천시 애막골길16번길 6 (석사동). 우석초등학교	
25	장학 초등학교	2	40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449번길 33 (동면)장학초등학교	

시도	학교명	교실수	이용인원	소재지	연락처
26	조양 초등학교	3	59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길 257 (동산면)	
27	중앙 초등학교	2	4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88번길 14 (낙원동)	
28	지촌 초등학교	2	25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길 130 (사북면. 지촌초등학교)	
29	지촌초등학교 지암분교장	1	16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길 431 (사북면. 지촌초등학교지암분교)	
30	천전 초등학교	2	4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울문1길 16-9 (신북읍)	
31	추곡 초등학교	1	10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북산로 34 (북산면)	
32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2	40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16 (효자동.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3	춘천삼육 초등학교	2	27	강원도 춘천시 동면 방죽길 56-10 (동면. 삼육초등학교)	
34	춘천 초등학교	2	35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7번길 14-5 (중앙로3가. 춘천초등학교)	
35	호반 초등학교	2	27	강원도 춘천시 후만로126번길 35 (후평동)호반초등학교	
36	효제 초등학교	2	38	강원도 춘천시 효제길 40 (효자동) 효제초등학교	
37	후평 초등학교	2	29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295번길 17 . 후평초등학교 (후평동)	

[표15] 춘천시 초등돌봄교실현황(2021년 2월기준)
출처: 교육부 2021년도 1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춘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시도	시설명	운영유형	수용인원 (정원)	소재지	연락처
1	큰골 꿈자람나눔터	위탁	25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15 큰골공원내	033-264-1096
2	석사 꿈자람나눔터	위탁	25	춘천시 후석로 48(석사동)	033-263-6111
3	퇴계 꿈자람나눔터	위탁	20	춘천시 지석로 32(퇴계동)	033-910-3228
4	범이곰이 돌봄센터	직영	100	춘천시중앙로 5 강원도청 2청사 1층	033-255-5700

[표16] 춘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현황(2021년 2월기준)
출처: 교육부 2021년도 1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춘천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시설명	수용인원 (정원)	소재지	연락처
1	은혜 지역아동센터	32	강원도 춘천시 두하길 14 (효자동)	033-254-8861
2	사북면 지역아동센터 꿈마을	19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길 45	033-243-1138
3	사북사랑자람터 지역아동센터	25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763-8	033-243-9511
4	갈릴리 지역아동센터	29	강원도 춘천시 우두강독길 163 (우두동)	033-256-5922
5	해님또래 지역아동센터	22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146번길 8-8, 2층 (퇴계동)	033-252-0464
6	벤엘 지역아동센터	29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16번길 13 (우두동)	070-7550-4210
7	햇살 지역아동센터	29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4, 2층	033-242-8410

8	드림 지역아동센터	33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212 (후평동)	033-255-0091
9	월드비전 지역아동센터	30	강원도 춘천시 근화길 95 (효자동)	033-254-7244
10	춘천효자 지역아동센터	27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34-16 (효자동)	033-261-1799
11	LH-YMCA퇴계푸름이 지역아동센터	32	강원도 춘천시 승지골길16번길 14, 관리동 2층 (퇴계동, 퇴계7단지주공아파트)	033-254-1291
12	하늘씨앗 지역아동센터	32	강원도 춘천시 후만로116번길 40 (후평동)	033-253-5225
13	늘기쁜 지역아동센터	25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08 (석사동)	033-262-0616
14	강북 지역아동센터	30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45 (사농동)	033-242-7427
15	춘천반석 지역아동센터	22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6번길 28 (석사동)	033-263-6777
16	한길 지역아동센터	22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267, 2층 (후평동)	033-253-2338
17	춘천지역아동센터	35	강원도 춘천시 두하길25번길 7-8 (효자동)	033-257-3636
18	춘천중앙 지역아동센터	25	강원도 춘천시 약사고개길 14 (죽림동)	033-256-3535
19	퇴계 지역아동센터	33	강원도 춘천시 행촌로 43 (퇴계동)	033-244-5637
20	LH행복꿈터 춘천YMCA만천 지역아동센터	19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석로326번길 96	033-255-1201
21	구세군소양 지역아동센터	19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13번길 12-7 (소양로3가)	033-254-2973
22	춘천성체 지역아동센터	19	강원도 춘천시 당간지주길74번길 13 (근화동)	033-255-7981
23	한림해피존 지역아동센터	29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5, 2층 (교동)	033-243-1813

	시설명	수용인원 (정원)	소재지	연락처
24	꿈샘 지역아동센터	25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47 (후평동)	033-242-0055
25	봄내 지역아동센터	25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6-2 (교동)	033-243-6412
26	보듬 지역아동센터	4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 49-11, 1층	033-263-0101
27	LH행복꿈터 춘천YMCA장학 지역아동센터	19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00, 106동 2층 (춘천장학엘에이치1단지)	033-255-1231
28	달팽이 지역아동센터	19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113, 101동 105호 (후평동, 현대아파트)	033-255-7753
29	근화 지역아동센터	22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441번길 12, 1층 (근화동)	033-242-4314
30	별빛 지역아동센터	29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춘화로 469	033-243-1821
31	깨비 지역아동센터	29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90, 2층 (효자동)	033-251-6150
32	에벤에셀 지역아동센터	35	강원도 춘천시 후만로116번길 5-4 (후평동)	033-911-3903

[표17] 춘천시 지역아동센터 현황(2021년 2월기준)
출처: 교육부 2021년도 1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초등) 현황]

연번	시도	사군구	시설명	초등학생 수용인원(정원)	소재지	연락처
1	강원	춘천시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60	강원도 춘천시 신샘밭로 89 1층	033-255-6601

[표18] 춘천시 방과후아카데미(초등) 현황(2021년 2월기준)
출처: 교육부 2021년도 1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2.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현황

춘천시는 강원도교육청, 춘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¹⁹⁾을 맺고 행복교육지구 지역특화사업으로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우리봄내동동'을 출범시켰다.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우리봄내동동'은 마을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돌봄 주체들이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사업이다.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우리봄내동동'	
추진방향	①주민들이 마을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함께 고민하는 마을돌봄교육공동체 구성지원 ②마을의 필요와 욕구, 역량을 기반으로 한 자율사업으로 마을교육자치 실현 ③마을돌봄교육활동가·선생님 발굴·지원으로 마을사람키우기
자율사업 제안예시	①마을돌봄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활동 ②마을주도 방과후 돌봄교육공간 모델사업 ③청소년의 자발적·주체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활동 ④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돌봄프로그램 운영 ⑤안전한 마을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활동
신청자격	생활권역별 3개 이상의 비영리 기관·단체·모임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
지원규모	마을돌봄교육공동체 5개소, 개소당 38,000천원 이내

[표19] 2021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출처: 춘천시청 홈페이지

[표19]과 같이 본 사업은 생활권역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교육의제를 해결하고, '동동활동가'라는 명칭으로 마을활동가를 양성, 활동비 지원 및 공간 임차비 지원을 가능케 한 사업이었다. 위의 사업에 최종 선정된 공동체는 ①호반안심마을공동체, ②비단병풍, ③칠전동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④퇴계동동, ⑤사북면 마을교육협의회 '어우름'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 연합뉴스. 2020.09.17. '민·관·학 협력 '행복교육지구' 강원 모든 시군에서 운영'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우리봄내동동'		
공동체명	참여네트워크	주요사업
호반안심마을 공동체	춘천여성협동조합 (대표단체) 호반초등학교 뒤뚜르어린이도서관 함께돌봄	①어린이전용작업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 (주5일 13-18시) ②부모교육 및 커뮤니티 공간인 돌봄카페 운영 ③마을학교, 요리교실, 자유놀이 등 여름방학 단기 돌봄(4주) ④도서관과 떠나는 산나들이(5회) ⑤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수업(22회) ⑥어린이기자단 운영, 분기별 마을신문 발행
비단병풍	비단병풍사회적협동조합 (대표단체) 금병초등학교 증1리 개발위원회	①책읽기, 숙제하기, 자유놀이 등 마을회관을 활용 한 상시 방과후 돌봄(주5일 오후3~6시) ②단계별 자전거 교육 후 춘천문화시설과 유적지 를 잇는 '따르릉 로드'만들기 (주1회) ③기초목공 교육 후 마을공간에 필요한 가구 제작 (주1회) ④김유정 문학 작품 읽고 작품 속 장소 나들이 후 동화집 만들기(주1회)
칠전동 마을돌봄교육 공동체	다행이다 (대표단체) 드림지기 신남초등학교 신남배드민턴클럽	①'다행이다'공간을 활용한 상시 돌봄(주5일 오후 2~6시) ②주민대상 책장 임대 통한 도서관 조성(함께 읽 고 싶은 책 전시와 공유) ③동동 샘과 함께하는 요리수업 운영 (월2회) ④동아리 활동 지원 (월2회) ⑤클레이, 뜨개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무나 공방 운영(주1회, 학생대상) 및 동동 샘과 함께하 는 공방프로그램 운영(월1회, 학생 및 주민대상) ⑥학교 연계 텃밭 수업 운영(연10회)
퇴계동동	퇴계동 주민자치회 (대표단체) 어깨동무 초등방과후 한봄사회적협동조합	①텃밭조성(상시) 및 텃밭 프로그램 운영(월1회) ②퇴계초·중 공간을 활용한 여름방학 단기돌봄 운 영 (3주, 종일반·반일반 운영) ③소규모 돌봄교육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④마을돌봄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북면 마을교육협의 회 '어우름'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대표단체) 사북자람터지역아동센터 송화초등학교·지촌초등학교, 신평중학교 3개학교 및 학부모회 사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북면 이장단협의회	①마을 내 인적·문화자원 조사 ②마을청소년 주간모임 운영(20회) ③청소년 스스로 캠프 운영(2박3일, 1회) ④원예프로그램 활용한 마을길·경로당 꾸미기(20 회) ⑤전래놀이 프로그램 운영, 전래놀이 한마당 개최 (1회)

[표20] 춘천형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운영현황/ 출처: 춘천시 시정소식지 봄내시보 7월호

사업을 담당하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는 5개 공동체에 속해있는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봄내동동 활동가 월례모임 및 역량강화 워크샵, 마을교육공동체 아카데미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의 특징은 첫째, 생활권역별 돌봄의제를 지역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협의체 구조를 통해 사업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 지원사업에서 없었던 공간 임차비, 활동가 인건비 등 유연한 지원을 시도한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학부모회, 학교 등 다양한 단체·기관들이 참여해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만든 것이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온종일돌봄정책이 춘천시와 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돌봄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춘천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자발적인 마을돌봄교육공동체의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 장에는 심층면접 및 간담회를 통한 돌봄수요자와 돌봄종사자의 욕구를 분석해 시민이 원하는 춘천형 초등마을돌봄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Ⅲ. 시민이 바라는 초등돌봄의 방향

1. 초등돌봄수요자/종사자 분석

1) 초등돌봄수요자(주양육자) 분석

		자녀연령	나이	주거지	취업유무	성별
A그룹 (6월8일)	사례1	9세	39세	후평3동	×	여
	사례2	8세, 9세	43세	후평3동	×	여
	사례3	8세, 9세	43세	후평3동	×	여
	사례4	13세, 8세	44세	후평3동	×	여
	사례5	12세	46세	후평3동	×	여
B그룹 (6월8일)	사례6	14세, 11세	45세	후평1동	○	여
	사례7	8세	38세	후평3동	○	남
	사례8	11세, 10세	42세	거두리	○	여
C그룹 (6월14일)	사례9	10세, 6세	42세	우두동	×	여
	사례10	20세, 10세	49세	만천리	×	여
	사례11	13세, 10세	45세	효자동	×	여

[표10] 돌봄수요자(주양육자) 심층면접 명단

춘천시 돌봄수요분석을 위해 초등자녀를 둔 주양육자들이 취업유무와 거주지, 성별에 따라 어떤 욕구를 지니고 있는지 그룹인터뷰를 통해 심층면접을 진행했다²⁰⁾. 주양육자 중에 남성비율은 현격히 떨어져 주양육자 남성 인터뷰 수는 1명에 그쳤다. 대부분 취업을 하지 않은 주양육자 여성이 인터뷰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의 돌봄수요는 돌봄기관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여건들이어서 대체적으로 수요층 데이터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컸다.

20) 돌봄수요자 심층면접은 6월 8일 2회, 6월 14일 1회에 걸쳐 평균 2-3시간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어린이작업장 푸루푸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그룹	일시 및 장소	사진
A그룹	6월 8일 오전10시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B그룹	6월 8일 오후 7시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C그룹	6월 14일 오전 10시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사진1] 초등돌봄수요자 심층면접 기록사진

면접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30-40대 주양육자로 대체로 한 자녀 보다는 두 자녀 이상 양육을 했으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사교육 등의 돌봄을 시도하면서 자녀의 학년에 따라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① 초등 저학년 중심의 1차적 돌봄안전망 필요

주양육자들은 자녀가 초등 1,2학년일 경우 구직을 미루거나 맞벌이 중인 여성이 대체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특히 초등 1학년은 대규모 공동생활에 적응하면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학교 내 주요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으로 주양육자들이 초등돌봄교실 이용을 가장 선호했다. 그러나 맞벌이/저소득층이 아닐 경우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취업유무와 소득구분에 상관없이 초등1학년이 학교에서 더 돌봄을 받기를 희망했다. 경우에 따라 주양육자들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지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읍면단위 초등학교를 보내기도 했는데 읍면단위 스쿨버스가 운영되는 초등학교가 인기가 많았다. 초등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내더라도 하원시간을 맞추는 것을 대부분 어려워했는데, 돌봄교실 하원시간은 4시 30분에서 5시 사이로 일을 하다가 자녀를 픽업해야 했다.

주양육자들은 초등돌봄교실이 저학년대상으로 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하원시간 또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주양육자와는 달리 자녀들의 경우 돌봄교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야외활동이나 자유활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를 답답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초등돌봄교실이 개선되어야 하는 점으로 보여진다.

② 자녀의 학년에 따른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 공간 필요

앞서 문헌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 중학년(3-4학년) 이상이 되면 자녀들이 자기 의지에 따라 다양한 공간을 탐색하고 여가를 즐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양육자 또한 이를 지원할 학교 안팎의 다양한 돌봄공간을 원하고 있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학교 내 장소로 학교도서관이 학기중/방학중에 좀 더 길게 개방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돌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다. 학교 밖 공간의 경우 초등 아동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유연한 돌봄공간을 원했으며 이동

동선이 짧아야 돌봄의 효용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단기적으로 요청하는 사안은 방학 돌봄 공백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해달라는 요구였다. 대부분 방학 중 돌봄공급이 턱없이 모자르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분산된 돌봄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했다.

주양육자의 경우 자신의 주변 인프라에 따라 돌봄인프라를 인지하는 경우가 모두 달랐는데, 학교의 안내공지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공공돌봄인프라를 공유하는 것 또한 안전한 돌봄망 구축에 필요조건으로 보였다. 대부분의 주양육자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정도의 기관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들도 면접자의 50%에 달했다.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동아리 활동이나 사회참여 프로그램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마땅한 사례를 경험해본 이들은 드물었다.

③ 투명하고 안전한 돌봄정보 및 안내 필요

주양육자의 경우 돌봄기관을 의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한 공간'으로 가장 적합한 공간을 초등학교로 보는 반면, 학교 밖 공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대부분 돌봄기관/학원을 이용하면서도 돌봄종사자와 주양육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험은 많지 않았다. 기관의 신뢰도는 돌봄기관 및 종사자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에서 어떤 돌봄이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부분은 주양육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운영을 공유하는 방과후 협동조합의 방법도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이다.

주양육자 심층면접에서 흥미로운 점은 공공의 돌봄영역에서 서비스만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돌봄경력을 살려 경제적으로도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도 많다는 것이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마을선생님 제도나 방과후 교사활동 등으로 돌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

④ 돌봄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주양육자들의 가장 주된 요청은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이었다. 선별복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돌봄사업에 신청조차 못하는 가정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편복지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을 가장 요청했다. 주양육자들은 개인이 짊어지는 돌봄 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서 돌봄 비용을 개인적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했다.

2) 초등방과후 돌봄종사자 분석

		돌봄종사자 경력	나이	근무지	성별
D그룹 (6월19일)	사례12	1년 1개월	43세	다함께돌봄센터	여
	사례13	5년	46세	초등학교 돌봄교실	여
	사례14	3년	44세	초등학교 돌봄교실	여
E그룹 (7월3일)	사례15	7년	38세	지역아동센터	여
	사례16	15년	51세	지역아동센터	여

[표11] 돌봄노동자 심층면접 명단

돌봄종사자 면접의 경우, 학교 안팎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²¹⁾ 6월 19일과 7월 3일 휴일에 심층면접을 진행했으며 현재 초등돌봄현장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정리하고자 했다. 춘천시 돌봄종사자의 경우, 자신의 일터를 제외하고 타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초등학교와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각자 어떤 환경에서 업무에 임하는지 잘 알지 못했으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돌봄이라는 이슈로 협업하는 구조가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상담사, 지역 내 인사들과 정기운영보고를 하거나 아동사례회의를 하는 경

21) 돌봄종사자의 경우 상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권의 침해가 우려될 수도 있어 신상을 드러내는 인터뷰사진은 생략하고자 한다.

힘들이 축적되고 있었다.

①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여건 마련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경우, 전일근무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각종서류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초등돌봄교실은 단시간 근무를 하며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돌봄의 질을 개선할 만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보였다.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 모두 자신의 일자리가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요청했다.

② 낙인효과 없는 통합적 돌봄시설 구축 마련

온종일 돌봄특별법 발의는 기존 돌봄종사자들에게도 불안한 요소로 작용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입소할 수 있는 아동의 기준²²⁾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봄취약계층과 일반계층을 비율을 비등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온종일돌봄대책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육성과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의 주양육자들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지역아동센터보다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춘천시 관내에도 지역아동센터가 32개에 달하며 25개 읍면동에 비교적 고르게 배치되어 있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협력적 관계로 확대되고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현재 춘천시 관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4개 설립되어 있으며 대부분 운영기간이 짧아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지자체 신축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돌봄수요자들의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현저히

22) 지역아동센터 돌봄대상 - ①돌봄취약 아동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특성기준(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 연령기준(18세 미만)을 모두 만족하는 아동 ②일반아동 :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 3명 이상 다자녀 가족의 아동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떨어졌는데 초등학교와 거리가 먼 지자체 유희공간에 위치해있어 대부분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개별 위탁으로 운영되어 다함께돌봄센터간 공통적인 업무분장매뉴얼, 협의체구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새롭게 생긴 공동육아나눔터도 비슷한데, 기관별로 2-3명이 채용되어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협의체 구성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돌봄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④ 협의체 구성을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

지역 내 돌봄시설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같은 생활권 안에서 아동들을 돌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한 지역별 마을돌봄협의체 구성도 필요해보였다. 지역내 돌봄종사자들은 민관을 넘나드는 협의체 경험이 부족해보였는데, 지역아동센터만이 사회복지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측면에서 협의체 운영 경험이 있었다.

온종일돌봄 지원조례²³⁾에는 돌봄협의체 운영이 명시되어 있는데 협의체를 기반으로 돌봄수요공급을 조정하고 통합사례관리가 되어야 종사자들이 자신의 돌봄현장을 뛰어넘어 지역 내 돌봄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사업의 경우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키움센터를 통해 각 돌봄기관이 상호보완하고 연결되는 돌봄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23) 온종일돌봄 지원조례는 지역별로 34개의 조례가 제정되어있다.
-국가법령지원센터(<https://www.law.go.kr/>)

2.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분석

마을돌봄교육공동체명	소속	참여자	조직형태
사북면 마을교육협의회 '어우름'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호반안심마을공동체	춘천여성협동조합	이**, 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칠전동 마을돌봄교육공동체	다행이다	서**, 윤**	협동조합 설립 준비 중
퇴계동동	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	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중
	한봄 사회적협동조합	공**	사회적협동조합

[표12] 마을돌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사회적경제 돌봄모델 간담회 명단

6월 15일 춘천여성협동조합과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마을돌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사회적경제 돌봄모델 간담회>를 개최하고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어떠한 고민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상호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춘천형돌봄교육공동체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모두 6개 조직으로 창업·인가를 준비 중인 협동조합도 포함되었다.²⁴⁾ 이 중 비단병풍사회적협동조합은 개별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5개 조직이 참석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는 참여사업에서 해당조직의 역할을 분석하고 향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어떤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고자 하는지 집중적으로 상호토론을 진행했다. 1부 순서에서는 춘천여성협동조합이 간담회를 제안하게 된 온종일돌봄정책,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주요 배경과 지역내 돌봄이슈를 공유했으며 2부 순서에서는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향후 활동비전을 나누었다.

24) 춘천형마을돌봄교육공동체 '봄내동동' 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보고서 26페이지, 표20 참조

마을돌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사회적경제 돌봄모델 간담회



[사진2] 간담회 사진(2021년 6월 15일/ 커먼즈필드춘천 1층)

①지역별 돌봄의제에 맞는 인큐베이팅 과정 필요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거점형과 네트워크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거점형 사업은 호반안심마을공동체와 칠전동 마을돌봄교육공동체, 비단병풍으로 초등학교 인근 돌봄공간을 개소하고 주5일 상시운영을 하고 있었다. 네트워크형은 퇴계동동, 사북면 마을교육협의회 '어우름'으로 기존의 조직들이 학교 안과 밖으로 네트워크를 이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도시/농촌과 구도심/신도심에 따른 지역별 의제가 다르기 때문에 돌봄인프라 구축, 거점활성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인큐베이팅이 필요해 보였다.

②민·관·학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

간담회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이번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와 주민자치회, 이장단협의회, 학부모회 등 다양한 조직들과 협업하며 주요 조정자, 집행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협업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거나, 거버넌스 방식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되었다. 이는 사업에 참여하는 개별조직들이 풀기보다 제도적으로 조례 제정 및 행정지원 등이 필요한 대목이다.

③돌봄선도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과 인력투여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는 정부의 온마을돌봄 선도사업과 같이 지역별 다양한 돌봄을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본 사업비는 연 3800만원으로 자부담 의무비율을 없애고 임차비, 1인 활동가 인건비 지원 등의 유연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 연간 8-9000만원, 지역아동센터 1억2000만원 예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금이다. 대부분의 돌봄공동체들은 무급 자원활동체계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운영하고 있어 향후 사업 지속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산 증액 및 단년 지원이 아닌 중장기 지원으로 지원방법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④마을돌봄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지원

해당 조직들은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협동조합,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 작은도서관, 마을교육협의회, 어린이작업장 등 자신의 조직에 맞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었다. 해당 모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을돌봄교육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단계별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3. 더불어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

FGI조사방법을 통해 돌봄수요자와 종사자를 욕구를 분석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들도 이어졌지만, 보고서에서 빠져있는 부분은 바로 아동에 대한 관점이다.

아동복지법 3조 2항에 따르면²⁵⁾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온종일돌봄정책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설계되기보다 학부모 입장에서 양육부담 경감의 목표로 디자인되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아동이 단지 돌봄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만드는 독립된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초등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²⁶⁾

20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방과후 희망활동은 1위 스마트폰 사용하기(40.5%)와 2위 친구들과 놀기(32.7%) 였지만 실제활동은 1위 학원이나 과외(57.6%), 2위 스마트폰 사용하기(39.1%)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동의 희망 2순위다. 친구들과 놀기 원하는 32.7%의 아동 중 오직 13.8%만이 방과후 자유로운 또래놀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돌봄은 돌봄수요자 측면에서 주양육자와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고, 돌봄종사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보편복지를 통한 차이와 차별이 없는 돌봄정책을 구성하고, 아동권을 고려한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호반안심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돌봄모델을 고찰하고자 한다.

25) 아동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6) 이명승, 2019,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IV. 호반안심마을공동체 사례연구

1. 공동체 배경 및 추진과정

1) 추진과정



[그림4] 호반안심마을공동체 4개 참여기관/모임

호반안심마을공동체가 위치한 후평3동은 9,112세대, 인구 21,160명²⁷⁾으로 주공 3,4단지가 위치했던 구도심에서 아파트 재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후평3동에 위치한 호반초등학교는 학생수 289명의 작은학교로 '강원행복더하기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목공수업, 텃밭수업 등을 통해 수업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호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근에는 큰 길을 건너지 않고 2개의 공원(호반공원, 세실공원)과 뒷산이 있으며 2008년 개관한 뒤뚜르어린이도서관도 운영되고 있다. 호반초등학교 인근 지역주민들은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이 많았고 수년간 다양한 공동체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구도심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시민동력을 갖추고 있었다.

27) 춘천시청 주민등록인구등록현황(2021년 6월기준)

2021년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봄내동동' 사업이 공지되고 호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을공동체 모임 <함께 돌봄>과 <춘천여성협동조합>이 초기에 협의를 하면서 공동체 사업은 본격화되었다.

	호반안심마을공동체 구성 추진과정
2020년 12월	마을공동체 <함께돌봄>에서 한해사업평가를 하며 마을에서 함께살기에 대한 토론진행. 초등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경우 호반초등학교로 이사함
2021년 2월	<춘천여성협동조합>에서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사업을 통한 돌봄사업을 <함께돌봄>에 제안. 대표단체는 <춘천여성협동조합>이 수행하기로 함. 제안서 작성 후 <호반초등학교>, <뒤뚜르어린이도서관> 제안. 승낙
2021년 3월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봄내동동' 선정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컨설팅 참가 1차 운영위원회 개최(교부신청서 작성 검토 및 업무분담 재확인) 돌봄공간 계약(춘천시 후만로 126번길 34 1층) 및 어린이작업장 이전
2021년 4월	호반안심마을공동체 돌봄공간(어린이작업장 뚜루뚜) 개소

[표21] 호반안심마을공동체 추진과정

춘천여성협동조합은 대표단체로서 초기 제안과정부터 호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돌봄공간을 어린이작업장의 형태로 개소하고 마을 내 다양한 돌봄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으며, 4개 네트워크의 사업공유를 위해 사업선정 이후 SNS(밴드)를 개설하고 자료를 공유해 정보를 다 같이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2) 후평2동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이전

춘천여성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춘천시 협동조합 협업활성화사업을 통해 한살림소비자생협, 춘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어린이작업장을 개소·운영했다. 어린이작업장은 서울시 이문동에 위치했던 '어린이작업장 이문 238'의 사례를 통해 춘천시내 어린이를 위한 대안공간을 만들고자 추진되었으며 협업단체였던 3개의 협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차 오픈을 추진해 9-12월까지 3개월 가량 어린이작업장을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진4] 과거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공간 사진
(2020년/ 춘천시 백령로 214 B1)

3개월 동안 어린이작업장을 운영하면서 평가할 지점은 ①안정적인 인력 확보 ②어린이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개방된 구조 ③방과후 어린이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 ④어린이작업장 취지에 맞는 다양한 작업장 기획 필요 등이었다. 춘천여성협동조합 또한 본래 사업들이 있었고, 협업을 하던 협동조합 또한 작업장이라는 공간을 함께 책임지기에 역량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본 작업장을 과감하게 호반초등학교 앞으로 옮겨 더 많은 어린이들과 작업장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3) 학교 앞 누구나 올 수 있는 가까운 돌봄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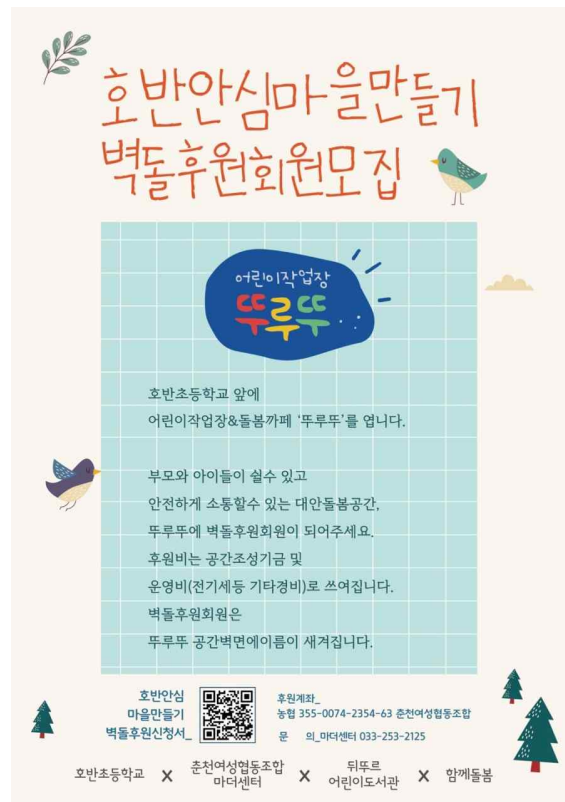
돌봄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승패요인은 바로 '거리'이다. 어린이들 스스로 걸어올 수 있고, 누구나 안전한 공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에 호반초등학교 바로 앞(도보1분거리)에 위치한 40여 평 남짓한 학원공간을 임차해 전면을 통유리로 교체하고 공간을 리모델링 했다.

[사진5] 호반안심마을 돌봄공간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공간사진



4) 시민들의 자발적 돌봄기금 마련

지원사업비로는 건물 보증금, 각종 가구 마련, 전기세 등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기에 공동체 선정공지가 뜨자마자 <호반안심마을만들기 벽돌후원>을 모집했다. 초기 후원의 경우 춘천여성협동조합 조합원들이 90% 넘게 참여해주었고, 이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인근 주민들이 후원을 해주었다. 후원금은 총 56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6월 기준 406만원이 모금되었다.



[그림5] 호반안심마을만들기 벽돌후원 모집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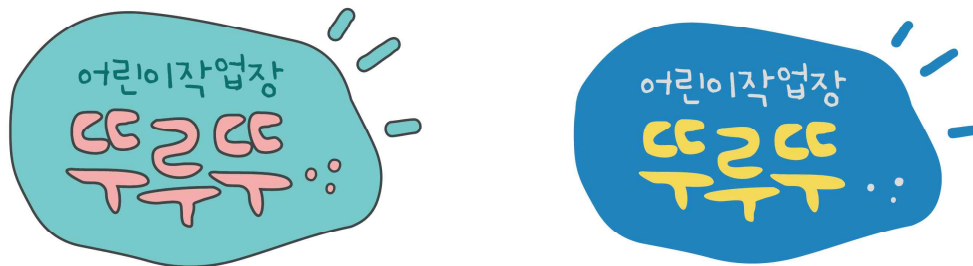
호반안심마을공동체의 사업추진과정은 ①호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집약되어 있는 시민동력을 결합시키고 ②3개월 가량 인큐베이팅된 돌봄 콘텐츠(어린이작업장)를 빠르게 리뉴얼 ③돌봄공간의 가장 큰 장점인 가까운 거리의 공간을 확보 ④유연한 기금집행을 위한 후원기금 모집의 과정을 거쳐 안착되었다. 다음은 공동체의 주요 돌봄모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1) 어린이의 행복권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

2018년 아동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²⁸⁾ 아동의 경우 또래친구들과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을 원하며 현대사회는 이러한 공간이 유료화된 키즈카페, PC방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강하다.

어린이작업장 뚜루뚜는 작업장의 브랜딩 또한 어린이 43명이 참여해 투표로 결정되었으며²⁹⁾ 후평동의 옛지명 뒷들, 뒤뚜루에서 유래한 단어를 재미난 입말로 바꿔 뚜루뚜³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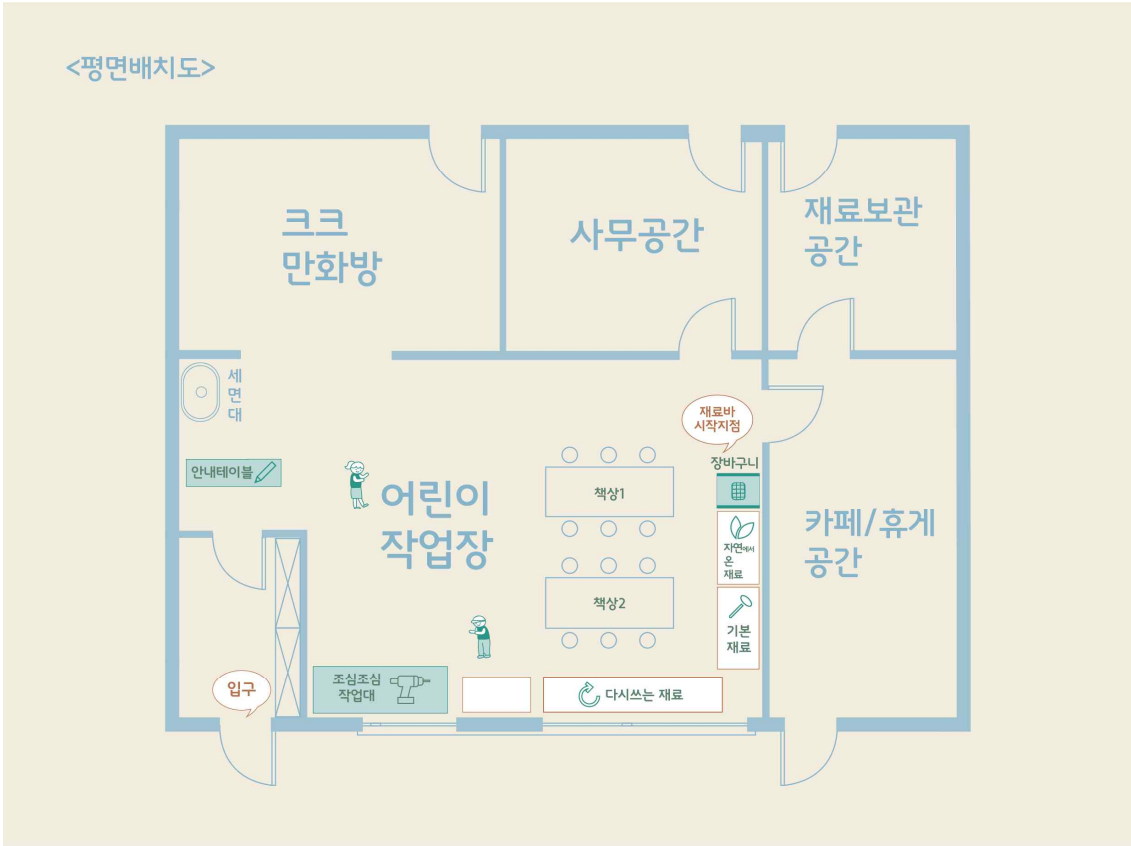
[그림6]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브랜딩 로고

어린이작업장 뚜루뚜는 작업장 공간 및 ㅋㅋ 만화방, 무인카페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히 기대어 있을 수 있는 좌식 휴게공간, 음료를 마시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카페공간을 통해 긴장도를 낮추고 학교 밖 공간으로서 해방감을 줄 수 있도록 조성했다.

28) 보고서 39p - 20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방과후 희망활동은 1위 스마트폰 사용하기 (40.5%)와 2위 친구들과 놀기(32.7%) 였지만 실제활동은 1위 학원이나 과외(57.6%), 2위 스마트폰 사용하기(39.1%)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동의 희망 2순위다. 친구들과 놀기 원하는 32.7%의 아동 중 오직 13.8%만이 방과후 자유로운 또래놀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29) 2020년 어린이작업장 조성에 참여한 3개 조합(한살림소비자생협,춘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춘천여성협동조합)의 조합원 자녀가 직접 투표했다.

30) 뚜루뚜는 회문(回文) 방식으로 앞뒤가 같은 단어로 아동의 언어유희적 측면에서 재미난 단어이다. 아 기상어의 후렴구 가사나 인도의 국민 가수 달리 멘디의 'Tunak Tunak Tun'가 개그소재로도 사용되 기도 하였다.



[그림7] 어린이작업장 평면 배치도

주출입구는 전면에 2개이며 만화방, 사무공간 쪽으로도 보조출입구 3개가 더 있어 비상대피로가 많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작업장 내부, 카페공간, 화장실에 각1개씩 총3개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충분했다. 공간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관리자가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중문을 걷어내고 소리가 전체적으로 들리도록 조성되었다. 입구 및 방에는 던지는 소화기를 비치해 두었다.

어린이작업장은 가오픈기간(4월12일~4월15일)을 두고 4월 16일 정식 개소를 하였다. 작업장의 이용자는 이용자관리를 위해 어린이 출입부 명부를 쓰게 했고 거의 호반초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학년/반/이름정도 기재를 하고 코로나로 인해 공간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였다.

어린이작업장을 처음 찾은 아동들은 입구에서 참여명부를 작성하고 작업장의 규칙을 선생님에게 안내를 받고 스스로 작업장의 재료를 고르고 작품을 만들게 된다. 작업장은 <자연에서 온재료>, <기본재료>, <다시쓰는재료>, <조심조심작업대>로 구성되어 있다.

카테고리	속성	이름
기본재료	속삭 싹둑	가위
		커터칼
		커터칼 리필
		송곳
	끈적	딱풀
		목공풀
		글루건
		글루건 심
		셀로판테이프
		테이프 리필
		박스테이프
		양면테이프
		마스킹(종이)테이프
	보호	커팅매트
	뽀족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 심
	뽕	핀치
	그리고 색칠하고	연필
		연필깎이
		지우개
		사인펜
		네임펜
		색연필
		오일 파스텔
		보드마카
		매직
		페브릭 마카
자	30cm 자	
	50cm 자	
선택재료	지류	색종이
		한지 색종이
		학종이
		색지
		A4용지
	지류는 아니지만	손코팅지
		펠트지
		셀로판지
		골판지
		습자지
	줄·끈	마끈
		리본끈
		종이끈
		고무줄
		우레탄 줄
		공예철사
	실	털실
		아크릴 실

	기타 소품	수수깡
		폼폼이(소)
		폼폼이(대)
		비즈류(구슬)
		열쇠고리
		나무집게
		머리핀 집게
	접착	눈알스티커
		스티커
		자석
	바느질 재료	실
		바늘
		천
		찍찍이
		숨
		단추
		옷핀
	만들고 그리고	수채화 물감
		물통
		붓
		팔레트
점토		
클레이		
	클레이도구	
자연에서 온 재료	산에서	솔방울
		나뭇가지
	바다에서	조개껍질
	밭에서	검은콩
		커피콩
		옥수수알
다시 쓰는 재료	휴지심	
	플라스틱 병	
	병뚜껑	
	나무젓가락	
	종이컵	
	박스	
	계란판	
	빨대	
	가베류	
양말목		

[표22] 어린이작업장 두루뭉개 재료구성표

어린이작업장의 재료는 2020년 초기 조성단계에 참여했던 (주)나누스페이스의 재료구성을 기본으로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시기마다 새롭게 충원하면서 아동의 호응도에 따라 변형되었다. 초기 오픈을 하고 어린이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봉제인형을 직접 만들어 작업장 활동가와 뒤

뚜르어린이도서관 봉사를 통해 50개씩 비치해 두었는데, 두 세달 인형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지만 박스, 물감류 등으로 아이들의 패턴은 계속 달라지고 있다.³¹⁾



[사진6]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실내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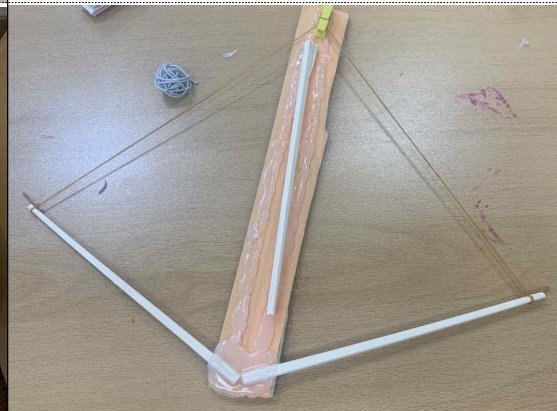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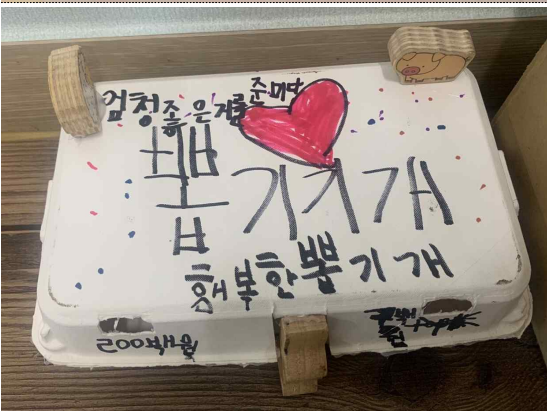
초기 어린이작업장 공간에 대한 컨설팅을 해준 씨프프로그램³²⁾은 어린이 작업장 공간에서 중요한 점은 ①어린이 스스로 작업하는 환경을 조성 ②어른의 역할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 ③작품을 평가하거나 칭찬하지 않는 것 ④공간을 지키는 활동가는 '오른손'등의 명칭으로 최대한 권위적이지 않는 어른의 위치일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작업장 뚜루뚜는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작업장의 철학을 기본으로 하되, 활동가의 호칭은 아직까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이는 '오른손'과 같은 별명을 썼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평어'가 기존에 학습되지 못한 아동들과의 관계에서 어색해지거나 무례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뚜루뚜 활동가가 호반초 학부모이기도 해서 '친구의 엄마'와 작업장 '활동가'의 위치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31) 어린이들이 가장 원하는 인형의 형태는 사람모양으로 머리카락을 붙이거나 옷을 입히는 것을 좋아한다. 구름, 닭, 물고기 등 다양한 인형을 만들었지만 호응도가 사람에 미치지 못했다. 인형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경험하게 되고 패브릭제품을 이용해 가방을 만들기도 하며 자유롭게 작업을 전환시켰다.

32) <https://c-progra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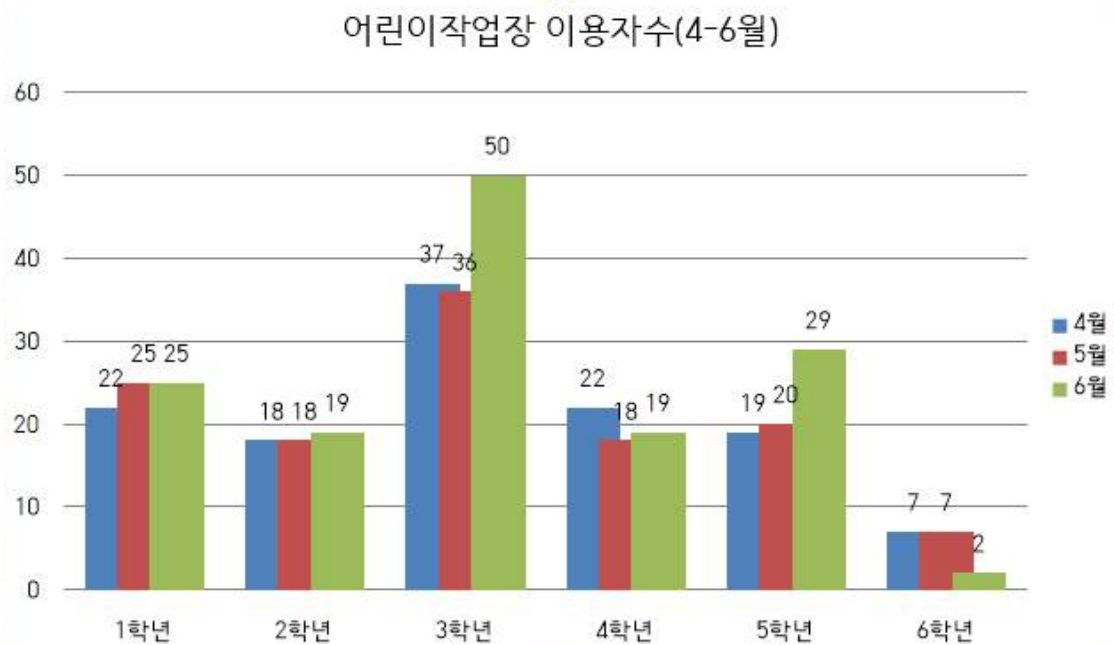
[사진7]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어린이 작품들



2) 유연한 돌봄 정거장

호반안심마을공동체의 돌봄거점공간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어린이 작업장인 이유는 초기 단계에서 멤버십 체계로 소규모 돌봄을 실시했을 때 돌봄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회원제의 돌봄을 실시하게 되면 인원이 10명 이상 넘을 경우, 프로그램 중심으로 공간이 운영이 되고, 실제로 어린이나 주양육자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도 기존 돌봄방식으로 한계가 있어 보였다.

또한 호반초 인근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2곳과도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위치로 시작하려고 한 것 또한 크게 작용했다.



[그림8] 최근 3개월 어린이작업장 이용자 수

어린이작업장 뚜루뚜는 3학년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6학년이 현저히 낮았다. 총 이용자수는 4월 125명, 5월 124명, 6월 144명이였다. 호반초등학교 전체 학생수는 289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이용률은 4월 43.2%, 5월 42.9%, 6월 49.8%가 이용한 것이다.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누계 총계
4월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442명
	15	23	27	46	오픈식	38	30	43	33	33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25	37	38	25	29						
5월	3일	4일	5일	6일	7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553명
	31	41	공휴일	32	39	20	35	33	34	45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13	27	공휴일	25	28	29	28	26	20	21	
	31일										
	26										
6월		1일	2일	3일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734명
		31	35	31	58	24	27	35	25	37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7	43	44	32	41	27	32	48	30	30	
	28일	29일	30일								
	22	18	37								

[표23] 어린이작업장 두루뚜 일일 이용자수 통계(4-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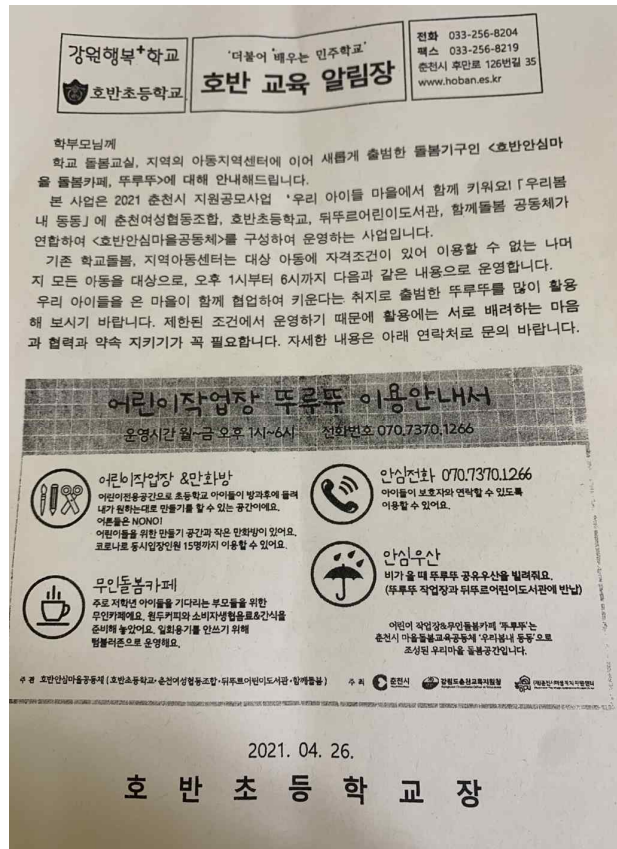
작업장의 이용은 요일별, 날씨별 수치가 달라지는데 상대적으로 월요일에 참가자수가 적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여유있게 아동들이 이용을 한다. 또한 비가 오거나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이용빈도가 높아진다.

[그림 8]과 [표23]과 같이 아동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틈새시간, 학원차량 대기시간의 아동들의 이용과 돌봄기관 이용을 하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 아동들이 주로 찾기 때문이다.

같은 학교, 같은 동네에 위치한 아동들이 어린이작업장 공간을 찾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모방창작을 하거나 협업으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생일선물을 포장하거나, 글루건을 쓰고 싶을 때 등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도 자유롭게 아동들이 드나들고 있다.

어린이작업장을 오픈하고 불과 3개월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빨리 안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관·학 네트워크 사업으로 호반초등학교의 공

식적인 홍보가 큰 도움이 되었다. 호반초등학교에서는 유튜브 채널 홍보 1회, 교육알림장 홍보 3회 등을 통해 두루두를 알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에게도 통지문과 홍보리플렛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8] 어린이작업장 이용안내를 하는 호반교육알림장(2021.04.26.)


3) 주양육자와 어린이를 위한 마을공간

어린이작업장은 어린이만 출입할 수 있는 어린이작업장 공간과 어른과 어린이가 모두 출입하는 무인카페 공간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저학년 주양육자의 경우, 코로나19로 학교 입구에서 자녀 하원에 맞춰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카페공간을 조성해 놓았다. 카페 공간에는 무인커피머신과 다회용기를 스스로 씻을 수 있는 텀블러존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인카페공간은 시간대별로 이용자가 달라지는데 오후 1시-3시 사이는 저학년 자녀를 둔 주 양육자가, 오후 3시-6시는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작업장 두루뚜 이용안내서


운영시간 월~금 오후 1시~6시 전화번호 070.7370.1266




어린이작업장 &만화방
어린이전용공간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후에 들려 내가 원하는대로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른들은 NONO!
어린이들을 위한 만들기 공간과 작은 만화방이 있어요. 코로나로 동시입장인원 15명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무인돌봄카페
주로 저학년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을 위한 무인카페예요. 원두커피와 소비자생협음료&간식을 준비해 놓았어요. 일회용기를 안쓰기 위해 텀블러존으로 운영해요.



안심전화 070.7370.1266
아이들이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어요.



안심우산
비가 올 때 두루뚜 공유우산을 빌려주세요. (두루뚜 작업장과 뒤뚜르어린이도서관에 반납)

어린이 작업장&무인돌봄카페 '두루뚜'는 춘천시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우리봄내 동동'으로 조성된 우리마을 돌봄공간입니다.

주 관 호반안심마을공동체 (호반초등학교·춘천여성협동조합·뒤뚜르어린이도서관·함께돌봄) 주 최 춘천시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춘천시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우리봄내 동동'으로 조성된 우리마을 돌봄공간입니다.

[그림9] 어린이작업장 두루뚜 이용안내서

돌봄공간을 매개로 한 돌봄서비스는 [그림9]와 같이 ①어린이작업장&만화방 ②무인돌봄카페 ③안심전화 ④안심우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양육자들은 어린이작업장 두루뚜를 매개로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마을공간을 이용하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한다. 이는 호반초등학교 놀이터, 호반공원, 어린이작업장 두루뚜, 뒤뚜르어린이도서관 등 자녀가 안전한 동선으로 방과 후 여가를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오가는 마을주민들 또한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곤란할 때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작은학교의 특성으로 어린이작업장과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요 아동들을 지역 내 호반안심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고 서로의 연락망을 통해 위급할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호반안심마을공동체는 마을 내 이웃을 알아가는 사업으로 <호반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월1회 뒤뚜르어린이도서관과 함께하는 산나들이, 여름방학 칼림바 동아리를 진행한다. 어른들의 마을학교는 천연화장품만들기, 요리교실, 부모교육 등을 통해 이웃을 알아가는 과정을 기획·운영한다. <호반마을학교>의 선생님들은 마을 자원을 활용해 마을에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거주하는 이들을 선생님이자 수강생으로 모집한다. 이는 마을 곳곳을 모두가 탐방하고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웃만들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사진9] 호반마을학교 활동사진



3. 호반안심마을을 통한 민관학 거버넌스

1)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공동체의 역할

호반안심마을만들기 공동체					
단체명	설립연도	대표자	주요활동	(사업 내) 담당 역할	참여인력
춘천여성협동조합	2013	이선미	여성들을 위한 보육/교육 사회적서비스 제공	*대표단체 / 협의체 운영, 돌봄공간 운영	이** 김**
호반초등학교	1991	이응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수행	호반마을기금조성, 민관돌봄네트워크 건인	이**
뒤뚜르어린이도서관	2008	강영일	도서정보서비스, 문화활동, 어린이쉼공간 제공	마을학교, 방학돌봄 공동기획	김**
함께돌봄	2019	남도연	방과후돌봄을 고민하는 부모들의 공동체모임	마을학교, 방학돌봄 공동기획	남**

[표24] 호반안심마을만들기 공동체별 역할분담

협력적거버넌스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다분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협력하고 상호의존성을 높여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으로, 권한과 책임도 나누는 개념이다.(최정은, 2017)

호반안심마을공동체는 초등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미션을 갖고 4개의 네트워크가 [표25]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월 1회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공동체의 미션을 공유했다.

호반안심마을의 미션	
1	호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들이 다양한 마을돌봄을 통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어린이들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전용공간을 마련한다.
3	어른들이 마을돌봄사업과 공동체에 참여해 더불어 함께살수 있도록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25] 호반안심마을만들기의 미션

호반안심공동체 활동일지			
일시	장소	활동내용	
3월17일	뒤뚜르 도서관	회의	1차 운영위원회
4월7일	뚜루뚜	회의	2차 운영위원회
4월12일	뚜루뚜	뚜루뚜	뚜루뚜 가오픈
4월16일	뚜루뚜	뚜루뚜	뚜루뚜 오픈식
4월30일	칠전동 들락날락	봄내동동	1차 봄내동동 활동가 모임
5월12일	뚜루뚜	회의	3차 운영위원회
5월13일	뚜루뚜	마을학교	학부모마을학교1. 수분크림 만들기
5월15일	호반공원	마을놀이터	호반마을놀이터&벼룩시장 진행
5월18일	비단병풍	봄내동동	2차 봄내동동 활동가 모임
5월20일	살루드	마을학교	학부모마을학교2. 샌드위치 만들기
5월27일	뚜루뚜	돌봄잇슈	어린이작업장 철학과 운영사례
5월29일	학교 뒷산	마을학교	산나들이
6월11일	뚜루뚜	마을학교	학부모마을학교3. 사찰음식 맛보기
6월16일	뚜루뚜	회의	4차 운영위원회
6월22일	뚜루뚜	봄내동동	3차 봄내동동 활동가 모임
6월23일	뚜루뚜	언론	춘천MBC 집수리 실습장소 제공
6월25일	뚜루뚜	후원	호반초 5학년1반에서 뚜루뚜 후원금 기탁
6월28일		언론	봄내시보 소개

[표26] 호반안심마을공동체 활동일지(3월~6월)



[사진10] 호반안심마을공동체 1차 운영위원회(2021.03.17.)

호반안심마을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매월 사업결산 및 향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후원금 모금액과 지출 등을 보고받는다. 제안된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기타 안건을 통해 지역 내 이슈들을 추가적으로 토론하기도 한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문제, 마을선생님 연계방안 등을 토론하기도 하고 참여 단체의 사업을 호반안심마을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풍부하게 풀어내기도 한다.

호반안심마을공동체 2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함께돌봄'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예정된 마을놀이터를 호반초등학교 앞 호반공원에서 진행하면서 ①호반초등학교는 홍보알림장 배포, ②뒤뚜르어린이도서관은 미용실 기획부스 진행, ③춘천여성협동조합과 뚜루뚜는 참가자 접수 및 사전실무를, ④함께돌봄은 전반기획집행을 담당하면서 호반초등학교 인근 주민들로만 90여명의 주민들이 참가했었다.

[사진11] 호반안심마을공동체 협업사업 - 함께돌봄의 마을놀이터&어린이벼룩시장



이처럼 호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들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모인 호반안심마을공동체는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우리봄내동동' 사업 뿐만 아니라 참여 공동체의 과제들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가면서 사업의 폭을 확대시키고 풍부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2) 공적기금이 투입된 안정적인 돌봄공간 모색

호반안심마을의 단계별 계획	
2021년	동네정거장 같은 두루두 공간 조성 ①어린이작업장 두루두/무인카페 운영 ②품앗이돌봄을 기반으로 한 방학SOS 운영 ③민관이 함께하는 돌봄잇슈 강좌 기획 ④마을선생님 발굴 및 호반마을학교 운영
2022년	두루두를 중심으로 돌봄네트워크(협의체) 형성 ①학교/지역아동센터/작은도서관과 연계한 유기적 돌봄시스템 구축 ②어린이 스스로 기획한 두루두 자율동아리 기획 운영 ③품앗이 돌봄을 기반으로 한 방학SOS 운영 ④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준)방과후협동조합 모색

[표27] 호반안심마을의 단계별계획

호반안심마을공동체는 어린이작업장 두루두를 기반으로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지원사업비 이외에도 자생적인 후원체계 마련을 위해 정기후원회원 및 벽돌후원기금(일시)을 모금하고 있다. 또한 방학 돌봄 등도 최소한의 인건비 마련을 위해 유료로 운영한다.³³⁾

어린이작업장 두루두는 기본적으로 비영리공간으로 누구나 이용가능한 돌봄공간을 운영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중층화된 돌봄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①어린이작업장을 기반으로 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②공동육아방식의 방과후협동조합 설립 ③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호반마을사회적협동조합 ④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진행 등이다.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유료화 할 경우 배제되는 아동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열려진 어린이작업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서비스는 정부의 온종일돌봄정책과 맞

33) 어린이작업장 두루두는 현재 마을돌봄교육공동체 활동가 인건비 지원 1인, 춘천여성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 1인으로 재원을 마련해 상시운영되고 있다.

물려 공적기금이 투여되어야만 가능하다.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민관을 잇는 협업모델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공의 기금이 투여되고 지역협의체 구성이 가능해질 때 마을돌봄의 공백은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춘천시 차원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돌봄사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민관거버넌스 차원의 돌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원칙들을 정리해본다.

V. 결론

1. 지속가능한 춘천형 돌봄모델 제안

1) 춘천형 온종일돌봄정책 추진

춘천시정부의 온종일돌봄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사회적경제조직의 돌봄사업 또한 지속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춘천형 온종일돌봄 로드맵(2022~2026)	
1단계	①행복교육지구 추진단을 기반으로 춘천시 돌봄수요·공급파악 - 지역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돌봄 인프라 파악 및 정원/현원비율 파악 ②돌봄공백을 없애는 초등방과후 온종일돌봄계획 수립
2단계	①온종일 돌봄조례 제정 및 거점별 마을돌봄교육협의회 구성 ②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우리봄내동동'을 통한 온종일돌봄 선도사업 추진 (다함께 돌봄센터 연간운영비 정도의 예산 책정)
3단계	① 춘천형 돌봄구축을 위한 아동시설 제도개선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대상자/일반대상 비율 5:5로 조정 - 민간시설에서 요청 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승인절차 제도 마련 ②우리동네 마을창착소-어린이작업장 연계방안 추진 ③거점별 온종일돌봄센터 설립 ④소규모 방과후협동조합에 가까운돌봄사업비 지원(마중물사업 대상지원)
4단계	①민/관 돌봄종사자 표준임금제 적용 ②돌봄시설에 방학 중 사회적일자리(시니어, 신중년 일자리, 부업대학생) 투여 ③거점별 마을돌봄교육협의회를 통해 매년 돌봄수요공급 조정 및 안내 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아동과·거점별마을돌봄교육협의회를 통한 원스탑 '봄내 돌봄on 페이지 구축·운영'

[표28] 춘천형 온종일 돌봄로드맵(안)

[표28]과 같이 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선도사업추진, 단계별/유형별 돌봄사업 추진, 보편복지에 따른 돌봄시설 기준완화, 돌봄종사자 노동 조건 및 업무 표준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돌봄on페이지개설, 마을 돌봄교육협의회를 통한 돌봄수요·공급 조정 등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영역별로 사회적경제 돌봄조직들이 함께 민관거버넌스의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2)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인큐베이팅

2021년 춘천시는 앞서 언급한대로 춘천형마을돌봄교육공동체 '봄내동동'사업을 통해 5개의 돌봄모델을 선정하고 육성·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이들이 지속가능한 돌봄모델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다함께 돌봄센터 진입장벽 완화

현재 춘천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춘천시가 관리하는 유휴건물에 '꿈자람나눔터'라는 이름으로 돌봄공간을 개소하고 위탁을 공고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지리적 거리가 멀어 돌봄의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³⁴⁾ 및 기준이 충족되는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다함께 돌봄센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과 같은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②지역특화돌봄공간 운영

문화특별시 춘천에 맞는 유연한 돌봄 공간 또한 육성이 필요하다. 호반

34) 2021년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신축 공동주택이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참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07.09.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안심마을만들기의 어린이작업장 사례나 칠전동 돌봄교육공동체의 마을 도서관과 같이 문화자원과 연계한 돌봄공간 조성 또한 좋은 돌봄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적경제조직의 돌봄컨설팅 및 교육역량 강화

공공에서 법·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지역 내 민간의 돌봄역량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마중물을 길러낼 수 없을 것이다. 춘천시 관내에 비영리 돌봄사업, 공동육아 협동조합 방식의 돌봄 경험이 있는 조직들이 돌봄 기관/공동체를 초기단계에 컨설팅하고 교육할 수 있는 중간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온종일돌봄정책을 분석하고 민관거버넌스돌봄사업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춘천시 돌봄현황, 춘천형마을돌봄교육공동체 현황을 파악, FGI 분석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돌봄의 방향을 타진해보았다.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의 하나의 사례였던 호반안심마을만들기 모델연구를 통해 지역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모델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민관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 아래 지역을 유익하게 바꾸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더불어 함께, 돌봄을 사회화하는 과정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2018.04.04
- °교육부 보도자료,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등으로 신학기 돌봄지원강화」, 2020.01.09.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제35차 저출산고령위원회」, 2021.03.30.
- °서울신문, “초등생 23% 방과후 ‘돌봄사각지대’ 돌봄기준 소득->필요중심 전환해야”, 2021.06.1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2021
- °이윤진, 「코로나19 이후 초등돌봄정책」-관련 법률안 분석과 초등돌봄기본법의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2020
- °연합뉴스, “온종일 돌봄 특별법 진통... 총파업예고”, 2020.09.29.
- °한겨레신문, “학부모 학교제공 초등돌봄교실 가장 희망한다.”, 2020.11.25.
- °김은정, 「자녀 돌봄실태와 정책함의」, 201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8
- °한겨레신문, “수도권 인구,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0% 돌파”, 2020.01.06.
- °교육부 보도자료,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2018.06.28.
- °교육부 보도자료,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2018.05.04.
- °김은정·홍진주·정세미·김현진, 「지역사회 기반 초등돌봄 사업의 현황과 과제」, 2021
- °이명승, 「초등방과후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2019
- °이윤미·백병부·김세희·송미숙·이혜진, 「2015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2015
- °박수정·김경주·방효비, 「시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정책 분석」: 2020학년도 혁신교육지구 계획을 중심으로, 2021
- °강원종합복지신문, “민병희 교육감, ‘지성과 감성 갖춘 민주시민’ 길러내겠다”, 2020.01.06.
- °최정은, 「마포마을방과후와 민관학 거버넌스 사례연구」, 2017
- °교육부, 「2021학년도 1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현황」
- °연합뉴스, “민·관·학 협력 ‘행복교육지구’ 강원 모든 시군에서 운영”, 2020.09.17.
- °춘천시 시정소식지 봄내시보 7월호, “춘천은 지금 -춘천형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 °국토부 보도자료,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2020.07.09.
- °최현임·손가현, 「아동권리적 초등돌봄서비스발전방안 탐색」-다함께돌봄정책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2021
- °최진희,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의 공간활용에 관한 연구」-지역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2013
- °이혜숙·이영주,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2019

[표 목차]

[표1] 온종일돌봄 공급계획(총괄) -----	2
[표2] 2020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	2
[표3] 초등돌봄 부처별 진행현황 -----	3
[표4] 온종일돌봄 특별법 의안 현황 -----	4
[표5] 초등학생 자녀의 학년별 희망 주간 돌봄 유형 -----	5
[표6] 2018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현황 -----	9
[표7] 지역(사례)별 초등돌봄사업 운영현황 및 특성 -----	10
[표8] 전국 혁신교육지구 현황 -----	11
[표9] 강원도 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추진과제-----	12
[표10] 돌봄수요자(주양육자) 심층면접 명단 -----	14
[표11] 돌봄종사자 심층면접 명단 -----	15
[표12] 마을돌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사회적경제 돌봄모델 간담회 명단-----	15
[표13] 마을돌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사회적경제 돌봄모델 연구절차 -----	16
[표14] 춘천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초등돌봄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지원 현황-----	18
[표15] 춘천시 초등돌봄교실현황(2021년 2월기준)-----	21
[표16] 춘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현황(2021년 2월기준)-----	22
[표17] 춘천시 지역아동센터 현황(2021년 2월기준)-----	24
[표18] 춘천시 방과후아카데미(초등) 현황(2021년 2월기준)-----	24
[표19] 2021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25
[표20] 춘천형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운영현황 -----	26
[표21] 호반안심마을공동체 추진과정 -----	40
[표22]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재료구성표 -----	47
[표23]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일일 이용자수 통계(4-6월)-----	51
[표24] 호반안심마을만들기 공동체별 역할분담-----	55
[표25] 호반안심마을만들기의 미션-----	55
[표26] 호반안심마을공동체 활동일지(3월~6월)-----	56
[표27] 호반안심마을의 단계별 계획-----	59
[표28] 춘천형 온종일 돌봄로드맵(안)-----	61

[그림 목차]

[그림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실태-----	4
[그림2]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업추진체계-----	7
[그림3] 춘천시 초등학령기 인구분포도(2021년 6월 기준)-----	17
[그림4] 호반안심마을공동체 4개 참여기관/모임-----	39
[그림5] 호반안심마을만들기 벽돌후원 모집 홍보물 -----	43
[그림6]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브랜딩 로고 -----	44
[그림7] 어린이작업장 평면 배치도 -----	45
[그림8] 최근 3개월 어린이작업장 이용자 수 -----	50
[그림9]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이용안내서 -----	53

[사진 목차]

[사진1] 초등돌봄수요자 심층면접 기록사진 -----	29
[사진2] 간담회 사진(2021년 6월 15일/ 커먼즈필드춘천 1층) -----	36
[사진4] 과거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공간 사진 -----	41
[사진5] 호반안심마을 돌봄공간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공간사진 -----	42
[사진6]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실내 활동사진-----	48
[사진7] 어린이작업장 뚜루뚜 어린이 작품들 -----	49
[사진8] 어린이작업장 이용안내를 하는 호반교육알림장(2021.04.26.)-----	52
[사진9] 호반마을학교 활동사진-----	54
[사진10] 호반마을학교 활동사진-----	57
[사진11] 호반안심마을공동체 협업사업 -----	58